

Market Trend of PET Film &amp; Nylon Film

# PET 필름 및 NYLON 필름 수급 동향

## Writer

(사)한국포장협회

## Contents

- I. 서론
- II. PET필름 수급 동향
- III. NYLON필름 수급 동향

## I. 서론

(사)한국포장협회는 2020년 결산을 기준으로 SKC(주),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주)화승케미칼, 효성화학(주) 등을 대상으로 PET필름 생산수급 동향을 조사하고,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 효성화학(주)의 NYLON필름 생산수급 동향과 함께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았다.

## II. PET필름 수급 동향

PET필름은 테레프탈산(TPA)과 에틸렌글리콜(EG)을 중합해 만든 면상 필름으로 포장용, 산업용, 광학용, 그래픽용 등 다양한 용도의 고부가가치 소재로 쓰인다. 2019년 기준 국내 시장규모는 약 1조 원대(30만t 내외)이며 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이 약 70%, 수입산이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PET필름시장은 (사)한국포장협회의 회원사인 SCK(주),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주)화승케미칼, 효성화학(주)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SKC(주)는 PET필름분야 세계 4위권 기업으로, 광학용 필름, 포장용 필름, 태양광용 필름 등을 생산하고 있다. 국내의 진천공장, 수원공장 등과 함께 미국, 중국 등에 PET필름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동사는 12개 라인, 13만 5,600톤의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출 5만 5,000톤, 내수 8만 1,000톤을 시장에 공급했다. SKC는 지난해에 이어 PET병과 함께 재활용이 가능한 세계 최초

[표 1] PET필름 수급 동향

(단위 : 톤/년)

업체명	라인수	생산능력	공급량	
			수출	내수
SKC(주)	12	135,600	55,000	81,000
코오롱인더스트리(주)	9	87,600	36,000	51,000
(주)화승케미칼	1	15,000	2,500	12,500
효성화학(주)	3	64,800	5,458	50,622

PET병 열 수축 포장재인 'SKC 에코라벨' 공급에 주력하고 있다. SKC 에코라벨은 PET병과 같은 소재에 재활용 공정에서 씻기는 잉크를 적용, PET병과 함께 재활용할 수 있어서 라벨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없고 재활용이 늘어나 친환경적이다.

코오롱인더스트리(주)는 9개 PET필름 라인에서 연간 8만 7,600톤의 필름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해외시장에 3만 6,000톤, 국내시장에 5만 1,000톤을 공급했다.

코오롱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지난해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었는데 올 초부터 수입에 제동이 걸리며 수급에 문제가 생겼다. 연초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6월부터 점차 풀리면서 시장이 회복되고 있다”이라며 “전체적으로 시장 수요 자체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서 보험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단가 문제로 인해 중국을 비롯한 수입산 PET필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내 제조사들은 포장용 PET필름을 거의 생산하지 않고 있지만, 코오롱은 국내 시장에 소홀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차별화해 공략해나갈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 역시 환경친화적인 재활용 PET를 시장에 선보이고 공격적으로 영업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재활용 플라스틱(PCR) 원료를 사용한 폴리에스터 필름(PCR PET필름)을 개발, LG생활건강과 롯데알미늄의 일부 생활용품, 식품용기의 포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SK종합화학과 함께 생분해성 플라스틱인 PBAT(Poly Butylene Adipate-co-Terephthalate) 개발에 성공, 본격적으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PBAT는 사용 후 땅에 매립하면 제품의 90% 이상이 6개월 안에 자연분해되는 친환경 첨단 소재이다. 코오롱은 친환경 포장재 시장에서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화승케미칼은 1개 라인에서 1만 5,000톤의 PET필름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시장에 1만 2,500톤, 해외시장에 2,500톤의 PET필름을 공급했다.

화승케미칼 관계자는 “상반기 수급문제가 심각했다. 중국과 동남아산 PET 수입이 거의 안됐고,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해당 국가의 수요가 급증하자 국내 소비에 바빠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 수출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라며 “2/4분기에 들어서며 수급문제가 서서히 해결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수요 버블이 줄어들고 있어서 지금은 유지 및 감소 추세에 들어섰다”고 시장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원자재 가격은 조금 오른 수준이다, 지난해에 비해서는 많이 올랐는데 이제 감소 추세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PET필름업계가 친환경 이슈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만 하는 시점”이라며 “재

활용 PET 등으로 대응하려고 해도 필름 제조사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재생업체가 고급 칩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한국포장협회 등 유관단체의 협조 등이 함께 모여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효성의 화학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2018년 6월 1일 설립 효성화학(주)은 3개 PET 필름 라인, 6만 4,800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내에 5만 622톤, 해외에 5,458톤을 공급했다. 효성화학 관계자는 “PET 필름과 나일론필름 모두 중국발 과잉 공급과 수출 문제로 부진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포장 및 IT용 수요가 증가하면서 판매량이 회복됐다. 위생 관련 수요가 지속되면서 견조한 실적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한 “효성화학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시장에 폴리프로필렌과 고순도 테레프탈산(TPA)을 비롯 포장용·산업용·광학용 필름, 산업용 특수가스 등 다양한 제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표 2] Nylon필름의 수급동향

(단위 : 톤/년)

업체명	라인수	생산능력	공급량	
			수출	내수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	2	9,000	3,000	6,000
코오롱인더스트리(주)	2	8,400	4,800	3,600
(주)효성화학	2	12,360	5,065	6,234

### III. NYLON필름 수급 동향

국내 NYLON필름시장은 (사)한국포장협회의 회원사인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 효성화학(주)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다.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는 지난해 2개 생산라인에서 9,000톤의 NYLON필름을 생산, 이 가운데 수출 3,000톤, 내수 6,000톤가량을 시장에 공급했다.

제이케이머티리얼즈 관계자는 “생각보다 코로나19 여파는 적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국내시장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수입 물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국내시장 수요가 많이 줄어든 것”이라고 시장 상황을 설명하며 “향후 국내시장 공략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코오롱인더스트리(주)는 지난해 2개 라인에서 총 8,400톤의 NYLON필름을 생산했

다. 수출용은 4,800톤, 국내용은 3,600톤을 기록했다.

코오롱 관계자는 “나일론은 시장 수요가 매우 한정적인 데다가 그 수요가 줄어들고 있어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수급상태가 좋지 않고, 원부자재 관련 변동성이 높아서 시장 대응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효성화학은 포장용, 산업용, 광학용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NYLON필름분야 국내 시장점유율 1위 기업으로, 2개 라인을 통해 연간 1만 2,360톤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수출 5,065톤, 내수 6,234톤을 공급했다.

효성화학 관계자는 “국내 NYLON필름시장 1위 기업이지만 시장 전체 상황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만은 없다”며 “그래도 나일론부문의 1분기 실적이 흑자로 전환했기 때문에 점차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B]